

2021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국어 영역

정답

1	②	2	③	3	③	4	④	5	⑤
6	④	7	②	8	①	9	⑤	10	④
11	⑤	12	①	13	④	14	①	15	⑤
16	③	17	②	18	②	19	②	20	③
21	⑤	22	②	23	⑤	24	①	25	③
26	③	27	⑤	28	③	29	①	30	②
31	③	32	④	33	⑤	34	④		

해설

** 현대시 **

□ 출전: 이육사, <황혼>
김종길, <바다에서>

1.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는 ‘뜨거운’이라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소외된 존재들에게 보내고 싶은 ‘입술’의 온기를 구체화하고 있다. (나)는 ‘차운’이라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물보라’의 부정적 속성을 구체화하고 있다.

① (가)와 (나) 모두 수미상관의 구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에는 묻는 형식이 나타나나 그에 대해 답하는 형식은 나타나지 않으며, (나)에는 묻고 답하는 형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④ (가)에는 색채어 ‘푸른’이 나타나나 (나)에는 색채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 모두 반어적 표현도,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도 나타나지 않는다.

2.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C]에서 화자는 ‘별들’, ‘수녀들’, ‘수인들’이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다고 여기고, 황혼을 통해 그들에게 자신의 ‘입술’을 보내고 싶어 한다. 따라서 ‘의지할 가지 없’이 ‘떨고 있’는 존재들이 ‘별들’, ‘수녀들’, ‘수인들’에게 위로 받기를 바란다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① [A]에서 화자는 ‘인간’이 ‘외로운’ 존재임을 인식하고 이를 ‘바다의 흰갈매기’에 비유하여 부각하고 있다. ② [B]에서 화자는 ‘황혼’의 ‘손’에 ‘입술’을 ‘맞추어 보’려는 것에서 황혼의 품에 안긴 ‘모-든 것’에 ‘입술’을 ‘보내’고자 하므로 황혼의 ‘손’에서 ‘모-든 것’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D]에서 화자는 ‘행상대’나 ‘인디언’이 황혼의 ‘품안’에 안기기를 바라며, ‘황혼’에게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달라고 말함으로써 ‘지구의 반쪽’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⑤ [E]에서 화자는 오늘 맞아들인 황혼으로 인해 ‘오월의 골방’이 ‘아늑’해졌음을 느끼면서, ‘내일도 또 저-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라는 표현을 통해 오늘 밤이면 사라지는 ‘황혼’이 ‘내일도’ 다시 찾아올 것이라 여기며 ‘황혼’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3. [출제의도] 시상 전개 방식 파악하기

(나)에서 화자는 ‘물거품’같이 ‘일었다간 스러’졌던 과거의 자신을 ‘아득히 띄워보내’려 하므로 이러한 행동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에 대한 미련을 읽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화자는 자신의 ‘옛날’과 현재를 단절시킴으로써 긍정적인 미

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① 화자는 과거에 겪었던 시련을 떠올리며 ‘차운 물보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② ‘부서지는 파도’ 속에 ‘해로가 일렁’이는 상황에도 화자는 자신이 현재 홀로임을 느끼고 있다. ④ 화자는 현재 ‘자폭의 잔’을 채우던 ‘옛날’을 ‘아득히’ 띄워 보내며 부정적 과거와 단절되기를 바라고 있다. ⑤ 화자는 현재 ‘바다만’ 한 ‘슬픔’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늪우치지 않을’ ‘하늘’을 꿈꾸고 있으므로 ‘늪우치지 않을’ 수 있는 미래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나)에서 ‘바다’는 ‘차운 물보라’나 ‘부서지는 파도’와 같이 고난과 슬픔의 부정적 속성을 지닌 공간으로 나타나 있다. 반면 바다 위에 존재하는 ‘하늘’은 ‘물거품’으로 ‘자폭의 잔을 채우던’ 과거의 자신과는 달리 ‘늪우치지 않’아도 되는 긍정적 대상으로 나타나 있다. 화자는 자신이 ‘꿈꾸’고 있는 하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바다만’ 한 ‘슬픔’을 던지고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자는 바다를 하늘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슬픔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고난과 슬픔에 굴하지 않고 긍정적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의지를 바탕으로 슬픔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① (가)에서 화자가 ‘커-튼을 걷’음으로써 골방 밖 세계에 있는 황혼이 골방 안으로 들어오게 되며, 이를 통해 차단된 두 공간이 연결될 수 있다. 이를 인식하고 있는 화자는 골방의 ‘커-튼을 걷’어 황혼을 맞아들이고자 하고 있다. ② (가)에서 골방 안에 있는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있는 별들, 수녀들, 수인들, 행상대, 인디언 같은 소외된 존재들에게 만물을 포용할 수 있는 황혼의 기운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③ (가)에서 골방 안에 있는 화자는 골방 밖 세계에 있는 소외된 존재들을 직접 만날 수 없는 고립된 공간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므로 황혼을 통해 그들에게 자신의 입술을 보냄으로써 그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전하고 싶어 한다. ⑤ (나)의 화자는 1연에서 바다의 ‘차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울음을 참’는 소극적 자세를 보였으나, 5연에서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하여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능동적인 자세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고전 소설 **

□ 출전: 작자 미상, <민시영전>

5.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부인이 아들과 함께 있는 걸인 행색의 민시영을 엿보는 상황에서 ‘비록 구 년 전 안목을 하룻밤 보았으나 말소리를 모를소냐?’라고 한 것을 통해 부인이 남편을 알아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① 민시영은 과거 시험을 보고 싶다고 월봉대사에게 부탁했지만 월봉대사는 ‘아직 말라.’라고 하였다. 그 후 민시영은 다시 부탁하지 못하고 수년을 보내는 중에 월봉대사가 갑자기 민시영에게 과거 시험 보기를 바라라는지를 물어 보았기 때문에 월봉대사가 허락할 때까지 민시영이 거듭 부탁한 것은 아니다. ② 월봉대사는 ‘과장의 기구’가 없다고 말하는 민시영에게 자신이 이미 장치했다며 필묵을 내어주고 있을 뿐, 민시영을 꾸짖지는 않았다. ③ 임금은 민시영에게 ‘살기는 어디며 생장고락은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어봤지만, 그의 글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하지는 않았다. ④ 소비는 민시영을 ‘걸인’이라고 생각하며 그의 정체를 눈치 채지 못했고, 민시영의 아들인 도련님이 있는 곳으

로 안내하지도 않았다.

6.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전정에서 임금이 유사에게 명을 내리겠다고 한 것은 맞으나, 민시영이 아름다운 의관으로 고향에 돌아온 것은 아니다. 고향에 돌아온 민시영은 ‘티끌에 때가 없고 정수리에 은은한 정기가 있고, 미간에 아름다운 태도를 감추고 있’었으나 의관은 남루하였다.

① 민시영은 아내의 요청으로 십 년 동안 학업에 전념하기로 아내와 약속하고 고향을 떠났다. 그리고 북한산에서, 민시영의 이런 사연을 들은 월봉대사가 남편에 대한 아내의 정성에 감동 받아 민시영을 가르치게 된다. ②, ③ 과거 시험장에서 민시영은 북한산에서 월봉대사가 써 준 글제가 과거 시험에 나온 것을 보고 ‘선생의 명령이로다.’라고 하며 월봉대사가 말한 대로 하였다. 또한 임금의 꿈에서 월봉대사는 자신이 제시한 글제를 과거 시험에 내라고 하였는데, 이 글제는 민시영에게 써 준 글제와 동일했다. 이후 민시영이 전정에서 임금을 알현할 때 임금이 자신의 꿈 속 도사가 월봉대사라고 말하였다. ⑤ 십 년 기한으로 학업에 전념하기로 약속하고 고향을 떠난 민시영이 십 년을 채우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부인은 자신을 만나려고 하는 민시영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7.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임금은 ‘국난에 사양상이라’를 언급하며 나라의 어지러움을 근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나라를 걱정하는 임금의 마음과 민시영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을 뿐, 민시영이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초월적 능력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는 임금의 마음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부인은 십 년의 기한을 못 채우고 돌아온 민시영을 받아들이면 학업이 중단될 것이라 여기고 소진이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남편을 쫓아내려고 한다. ④ 임금의 꿈에 월봉대사가 나타나 자기가 제시한 글제를 과거 시험에 내라고 하였는데, 이 글제와 과거 시험을 보러 가려는 민시영에게 써 준 글제는 동일하였다. ⑤ 머슴살이 하던 민시영이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아내의 간곡한 요청 때문이었다. 민시영은 자신의 사연을 숨김없이 임금에게 말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임금은 민시영에게 ‘네 가빈하니 또 양치를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8.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A]는 임금이 어젯밤 꿈의 연고를 해득하지 못하다가 민시영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야’ 그 연고를 알게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B]는 부인이 민시영과 이별할 때의 약속을 언급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남편을 보지 않겠다는 결심을 드러내고 있다.

** 기술 **

□ 출전: 김용석, <운영체제>

9.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5문단에서 특정 프로세스가 원하는 자원을 계속 할당받지 못하는 상태인 기아 상태가 발생할 경우 새로운 프로세스의 시작을 보류하도록 조치하여 기아 상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① 2문단에서 특정 프로세스의 실행 전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미리 할당하면 점유 대기 조건을 부정하여 교착 상태를 예방한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안전 순서열이 존재하는 안전 상태에서 프로세스에 자원을 분배했을 때 교

작 상태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안전 순서열의 수와 관계없이 안전 순서열이 존재하는 경우 교착 상태를 회피할 수 있다. ③ 5문단에서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원이나 시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스템의 성능 저하가 교착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성능 저하보다 큰 경우 교착 상태를 무시한다고 했으므로 교착 상태를 무시하더라도 교착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컴퓨터의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없다. ④ 5문단에서 교착 상태를 교착 상태 이전으로 복구시키기 위해 주로 교착 상태에 속한 프로세스를 중지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교착 상태에 속한 프로세스를 중지시킬 경우 시스템을 교착 상태 이전으로 복구할 수 있다.

10.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1문단에서 모든 철학자는 가운데 놓인 스파게티를 덜어 오기 위해서 양옆의 포크를 동시에 이용해야 하며, 다른 철학자가 사용 중인 포크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규칙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모든 철학자가 왼쪽에 놓인 포크 f_n 을 먼저 든 다음 오른쪽 포크 f_{n+1} 을 들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모든 철학자가 자신의 왼쪽 포크 f_n 을 집을 때 P_5 만 오른쪽 포크 f_1 을 집게 하면 P_5 의 왼쪽 포크인 f_5 가 남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먼저 f_4 를 집은 P_4 가 f_5 도 잡을 수 있게 되어 스파게티를 덜어 와 식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서로를 무한정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 교착 상태를 해결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2문단에서 교착 상태는 ‘상호 배제 조건’, ‘점유 대기 조건’, ‘비선점 조건’, ‘순환 대기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발생한다고 했으므로 상호 배제 조건을 부정할 수 없어도 철학자들이 집는 포크에 고유한 순서를 할당하여 순환 대기 조건을 부정하면 교착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다.

① 특정 프로세스의 실행 전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미리 할당하여 점유 대기 조건을 부정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특정 철학자에게 포크 두 개를 미리 지정하는 것은 점유 대기 조건을 부정하는 방법에 해당한다. ② 만찬 중 두 철학자가 하나의 포크를 동시에 공유할 수 없으므로 자원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을 요구하는 상호 배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③ 철학자들이 다른 철학자가 사용 중인 포크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프로세스가 어떤 자원의 사용을 끝낼 때까지 그 자원을 사용할 수 없는 비선점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④ 교착 상태를 발생시키는 조건들을 부정하여 철학자들이 식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더라도 식사를 먼저 시작한 철학자가 포크를 내려놓지 않으면 특정 철학자는 포크를 계속 얻지 못해 기아 상태가 발생한다.

12.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③가 12일 경우 P_2 의 추가 요구량은 8이 되므로 사용 가능량보다 많게 된다. 따라서 ③가 12일 경우 <보기>의 시스템에는 P_4 로 시작하는 안전 순서열만 존재하게 된다. 이때 P_4 가 사용하고 반납한 자원을 P_2 가 사용한 후 반납하면 사용 가능량이 12가 되어 P_1 과 P_3 이 모두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③가 12일 경우 $P_4-P_2-P_1-P_3$ 의 안전 순서열과 $P_4-P_2-P_3-P_1$ 안전 순서열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된다.

② ⑥가 8보다 크다면 P_4 가 사용하던 자원을 모두 반납하더라도 P_1 , P_2 , P_3 의 추가 요구량보다 작게 되어 안전 순서열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보기>의 시스템은 안전 상태가 아니다. ③ 추가 요구량은 최대 요구량에서 현재 할당량을 제외하고 남은 자원을 의미하므로 P_4 의 최대 요구량 8에서 현재 할당량인 2를 제외하면 추가 요구량 ⑥는 6이 된다. ④ <보기>의 시스템에 P_4 로 시작하는 안전 순서열만 존재하려면 P_4 의 추가 요구량은 6 이하여야 하고, P_1-P_3 의 추가 요구량은 6

보다 커야 하므로 ⑥는 ⑥보다 크다. ⑤ P_1 과 P_3 의 추가 요구량이 사용 가능량보다 크므로 안전 상태일 때 P_1 과 P_3 으로 존재하는 안전 순서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13.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4문단에서 서로 공유하는 자원을 두고 점유선과 요구선이 순환하는 구조가 존재하더라도 순환 구조에서 독립적으로 단위 자원을 점유하고 있어 반납한 단위 자원을 순환 구조 내의 다른 프로세스에 할당할 수 있을 경우 교착 상태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경우 순환 구조에서 독립하여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P_2 와 P_4 가 점유했던 단위 자원을 반납하면 P_1 과 P_3 이 요구한 자원을 할당할 수 있게 되므로 (나)는 교착 상태로 볼 수 없다.

① (가)에는 프로세스에 할당되지 않은 자원 R_4 가 존재하지만 나머지 P_1-P_3 의 프로세스들이 R_1-R_3 의 공유 자원을 두고 점유선과 요구선으로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R_4 자원의 할당 여부와 관계없이 교착 상태가 발생한다. ② (가)의 R_2 에는 동일한 단위 자원이 2개 존재하지만 P_1 과 P_2 가 R_2 의 자원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P_3 이 자원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P_3 의 요구대로 자원을 할당할 수 없다. ③ (나)에서 P_2 나 P_3 이 사용하던 자원을 반납하면 P_1 이 요구한 자원을 할당할 수 있으므로 P_1 이 요구한 자원은 P_3 이 사용하던 자원을 반납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순환 구조 내 모든 공유 자원이 프로세스에 할당되어 있다.

**** 갈래 복합 ****

□ 출전: 권익룡, <풍아별곡>
박은, <야와송시유감>
유방선, <서파삼우설>

14.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의 ‘위의도 거룩하고 예모도 넓을시고’에서 대구의 형식을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나)에는 시간의 대비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다)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인간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 ⑤ (가)와 (다)에는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15.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화자는 <제6곡>에서 ‘종고금슬’로 날마다 즐겨 놀고, 생전에 다 즐기지 못하면 후회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화옥’이 있어도 때가 지나면 그곳에 들 수 없는 것처럼 ‘종고금슬’을 즐겨 노는 일도 너무 늦기 전에 해야 함을 ‘화옥’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① ‘고조’와 ‘정성’은 옹은 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옹은 소리를 담은 노래가 사대부에게 필요하다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② ‘해학’과 ‘즐김’을 좋아하나 ‘가혹함’과 ‘거칠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현재를 즐기되 그것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낙이불음 사상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좌상’에 손님이 있고, ‘이 해’가 저물었으니 즐겁게 놀자고 노래하고 있으므로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과 현재를 즐기자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중심’을 즐길지니 ‘외모’를 위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걸치레보다 마음속을 지키는 것이 사대부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16.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나’는 벼슬에서 물러난 ‘이이립’에게 세 벗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벗을 취하는 방법을 아는 이이립이 새로운 때를 만나 나라를 위해 그의 능력

을 펼치기를 기대하고 있다. 벼슬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나아갈 때를 기다리지 못함을 경계하는 것은 아니다.

① ‘확대경’은 불을 만드는 것으로 마음의 밝은 덕을 밝혀서 지닐 수 있게 하는 사물이다. ④ ‘빨잔’은 아래로 깊고 비어 있는 생김새로 모든 물건을 포용하는 아량을 의미한다. ⑤ ‘칼’은 예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옛 정승이었던 진평과 여희의 사례를 보아 공평함과 결단력을 의미한다.

17.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나)에서 ‘늪은 종’이 재를 털어 ‘등불’을 밝히고 있을 뿐 ‘늪은 종’이 자연과 교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① (나)에서 ‘시’를 읊조리자 ‘말’이 더욱 길게 운다고 한 것은 화자가 대상이 자신에게 반응했다고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초승달’이 그림자를 만들고 ‘술’도 절로 소리를 낸다고 한 것은 화자 자신이 자연과 교감을 하고 있다고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다)에서 ‘이이립’은 스스로의 별호를 ‘서파삼우’라고 지었으므로 그가 사물을 벗으로 삼아 사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에서 ‘나’가 ‘세 벗’의 의미를 ‘이이립’ 대신 설명해 주고 있으므로 나는 이이립과의 교감을 통해 이이립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8. [출제의도] 소재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하기

좌상에 손님이 있고 술통에 술이 가득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은 화자가 손님을 맞아 풍류를 즐기게 하는 소재이다. 아내가 준 술을 마시고 누우니 가슴속에 불평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은 화자의 근심을 잊게 하는 소재이다.

**** 사회 ****

□ 출전: 폴 크루그먼 외, <국제경제학>

19.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이 글은 A국이 B국에 수출할 교역재를 선정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여러 제품들의 생산비 우위를 판단할 때 상대적 임금을 기준으로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그보다 높은 제품을 교역재로 선정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① 이 글은 상대적 임금을 기준으로 선택적 생산이 무역 상황에서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됨을 설명하고 있을 뿐, 상대적 임금을 낮추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이 글에서는 상대적 임금과 상대적 생산성 우위의 비교를 통해 선정된 교역재도 수송비에 따라 비교역재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는 수송비에 따라 교역재와 비교역재의 판단이 변할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일 뿐 교역재와 비교역재의 생산비 산출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이 글은 선택적 생산을 통한 무역이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20.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2단락에서 교역재가 상대적 우위를 가지려면 생산비를 줄여야 하는데, 각국은 기술력을 높여 노동소요량을 줄이거나 값싼 노동력으로 임금을 줄임으로써 생산비를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만 실현되어도 생산비는 줄일 수 있으므로 값싼 노동력으로 임금을 줄였다면 노동소요량까지 반드시 줄이지 않아도 생산비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다.

① 생산비는 1단위 제품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을 곱한 값이므로 임금이 일정할 때 노동시간을 줄이면 생산비는 낮아진다. ④ 5문단을 참고할 때, 상대국보다 임금이 낮은 국가도 그 나라에서 생산 가능한 어떤 제품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상대적 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상대

국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1.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3문단을 통해 A국의 상대적 임금은 A국의 임금을 B국의 임금으로 나눈 값이며, A국과 B국 모두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상대적 임금보다 높은 제품에 생산비 우위를 갖게 됨을 알 수 있다. <보기>에서 X국의 Y국에 대한 상대적 임금은 2이고, Y국의 X국에 대한 상대적 임금은 0.5이다. 그러므로 X국은 Y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2보다 큰 과일은 수출하고 2보다 작은 과일은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Y국은 X국에 대한 자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0.5보다 큰 과일은 수출하고 0.5보다 작은 과일은 수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② 바나나 생산에 있어서 X국의 Y국에 대한 상대적 생산성 우위는 1.5(9/6)이므로 바나나는 Y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X국의 노동시간이 4시간으로 줄어든다면 생산성 우위는 2.25(9/4)가 되므로 그 값이 상대적 임금인 2보다 높아져 바나나 생산에 있어서의 생산비 우위는 X국이 차지하게 된다. ③ 5문단을 참고할 때, X국의 상대적 임금이 2이므로 Y국의 12시간 노동이 X국 입장에서는 6시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2.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6문단을 참고할 때 <보기>에서 갑국은 현재 쌀과 밀에 생산비 우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6문단에서 RS와 RD의 교점이 수평 구간에서 생기면 두 국가 모두 그 구간에 해당하는 재화를 생산하게 된다고 했으므로, RS와 RD의 교점이 ⑥와 ㉓ 사이로 이동할 경우 갑국과 을국 모두 밀을 생산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을국에서 새롭게 생산하기 시작한 밀의 생산량만큼 현재 밀을 생산하고 있는 갑국의 노동 수요 일부가 을국으로 이동하게 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① 6문단을 참고할 때 <보기>에서 갑국은 현재 쌀과 밀에 생산비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RS와 RD의 교점이 ④와 ① 사이로 이동하면 밀 생산에 있어서의 생산비 우위는 갑국에서 을국으로 넘어가고, 쌀에 있어서의 생산비 우위는 여전히 갑국이 가지고 있게 된다. ③ 6문단을 보면 RS와 RD의 교점, 즉 상대적 임금이 경사 구간 내에서 상승하게 되면 각국이 수출할 제품의 품목은 변하지 않으나 제품의 가격은 상승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량도,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동 수요도 감소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RS와 RD의 교점이 ㉓에 가까워질수록, 즉 경사 구간 내에서 상대적 임금이 상승할수록 갑국에서 생산하는 밀의 가격은 상승할 것이며 그만큼 밀에 대한 을국의 수요량도 줄어들게 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23.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5문단을 보면 선택적 생산을 통한 무역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이유는 선택적 생산으로 인해 각 제품을 동일 임금 대비 더 적은 노동시간을 들여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7문단을 보면, 생산비만을 고려했을 때 상대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수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된 제품도, 그 제품의 수입을 위해 드는 수송비까지 고려했을 때 더 이상 상대국이 그 제품에 대해 우위를 갖지 못하게 되면 그 제품은 수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비교역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때 우위를 차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생산비 및 수송비를 자국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 노동시간으로 환산하여 비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송비가 있을 때에는 생산비에 수송비까지 모두 고

려해도 여전히 동일 임금 대비 노동시간이 상대국보다 적은 경우에만 선택적 생산을 통한 수출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됨을 알 수 있다.

24.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㉑은 ‘어떤 경우, 사실이나 기준 따위에 의거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고인의 뜻에 따라’의 ‘따라다’ 역시 ‘고인의 뜻에 의거하여’의 의미로 쓰였다.

② ㉒은 ‘기술력’을 높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전적 정의로 보았을 때 ‘품질, 수준, 능력, 가치 따위를 더 높은 수준으로 만듦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그러나 ‘목소리를 높였다’의 ‘높이다’는 ‘소리의 음계를 위쪽으로 옮기거나 진동수를 큰 상태가 되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③ ㉓은 ‘계산, 득실, 관계 따위를 낱낱이 헤아리다.’의 의미로 쓰였으나, ‘둘러주지 않느냐고 따졌다’에서의 ‘따지다’는 ‘문제가 되는 일을 상대방에게 캐묻고 분명한 답을 요구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㉔은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글, 그림, 음악 따위로 드러내다.’의 의미로 쓰였으나, ‘슬픈 감정을 나타내지’에서의 ‘나타내다’는 ‘내면적인 심리 현상을 얼굴, 몸, 행동 따위로 드러내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㉕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의 의미로 쓰였으나,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의 ‘어렵다’는 ‘가난하여 살아가기가 고생스럽다.’의 의미로 쓰였다.

**** 현대 소설 ****

□ 출전 : 김승옥, <차나 한잔>

25.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그’는 ‘김선생’에게, 자신에게 해고를 통보한 ‘문화부장’에 대해 말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이 만화 연재를 부탁한 ‘문화부장’을 생각하며 내적 독백을 하고 있다. 따라서 [A]에서는 인물의 말과 내적 독백의 교차를 통해 ‘그’의 심리가 드러난다.

①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한다는 것은 시간간격 배경이 계속 바뀌면서 서술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가 ‘김선생’과 대화하는 장면만 나타날 뿐 장면 전환은 나타나지 않는다.

26.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문화부장’은 만화를 그려 오지 않았다는 ‘그’의 말에 ‘그’가 자신이 해고당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을 드러내고 있을 뿐, ‘그’가 만화를 그려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① ‘문화부장’은 ‘그’의 해고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의 만화를 진심으로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그’는 편집국 안에 들어섰을 때부터 자신이 해고를 당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④ ‘김선생’은 해고를 당한 ‘그’와 술을 마시며 ‘그’에게 새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를 위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 ‘그’가 자신이 그리는 만화 주인공인 ‘아톰X군’에게 ‘차나 한잔’ 하자고 하며 ‘군과도 이별이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아톰X군’을 더 이상 그리지 않으려는 ‘그’의 마음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27. [출제의도]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기

㉑는 ‘그’에게 해고를 통보한 ‘문화부장’이고, ㉒는 ‘그’가 만화 연재를 부탁한 ‘문화부장’이다. ㉑는 ‘그’에게 해고 사실을 전하였고, ㉒는 ‘그’의 만화 연재 부탁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그’에게 자신의 처지에 대해 부정적 감정인 비애를 느끼게 하고 있다.

① ㉑는 ‘그’가 해고된 상황의 책임을 독자에게 돌리고 있다. ② ㉒는 ‘그’의 만화 연재 부탁을 거절하고 있을 뿐, 만화가의 자질에 대해 말하고 있

지 않다. ③ ㉑는 ‘그’에게 먼저 차나 한잔 하자고 했지만, ㉒는 ‘그’가 차나 한잔 하자는 말에 그와 차를 마셨다.

28.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그’는 신문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다른 신문사를 찾아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지만 거절당한다. 좌절한 ‘그’는 ‘김선생’과 만나 자신이 해고당했음을 말하며 술을 마신다. 따라서 ‘그’가 자신의 해고를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라고 말하는 것은 해고당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마저 실패한 ‘그’의 비애가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해고당한 신문사로부터 만화 연재 의뢰를 다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해고를 걱정하던 ‘그’는 ‘계집애’의 표정에서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던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전신에서 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다. 이것은 해고로 인해 생계를 걱정하는 ‘그’의 불안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그’가 ‘김선생’에게 해고를 미역국으로 비유하여 ‘너는 미역국이 다, 이거죠.’라고 말하는 것에서 자신이 해고당하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그’가 ‘차나 한잔’의 의미를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라고 모순 형용의 표현을 사용해 말하는 것은 ‘문화부장’과 차를 마시며 해고의 말을 들었던 자신의 비참한 심리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그’가 ‘아톰X군’의 얼굴을 술상 위에 그렸다 지우며 ‘군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 부탁’하고 자신은 ‘힘이 없다’고 미안해하는 것은 그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느끼는 무력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인문 ****

□ 출전 : 박동환, <안티호모에렉투스>

29. [출제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폴리스 형성 이후의 서양 철학과 춘추시대 이후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중국의 학자들이 실존적 불안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 왔는지를 비교하여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후 이와 또 다른 방식으로 실존적 불안에 대처해 온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③ 실존적 불안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1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 실존적 불안의 상반된 양상을 사례로 들고 있지는 않다. ⑤ 실존적 불안을 느끼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글쓴이의 설명이 1문단에 나타나긴 하지만 이를 실존적 불안의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학자들의 견해를 통합하여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30.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2문단에서 ‘폴리스가 형성되기 전의 고대 그리스에서 절대적 존재는 각 개체에게 미지의 대상이었다.’는 설명과 ‘그러나 폴리스가 형성된 후의 서양 철학에서는 이 절대적 존재에 대해 규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설명을 볼 때, 폴리스 형성 이전의 고대 그리스에서는 절대적 존재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① 3문단에서 수직적 모순에 대한 해결보다 수평적 모순을 해결하는 데에 집중했던 것은 춘추시대 이후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학자들에게서 나타난다고 서술하였다. ③ 5문단에 따르면 모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것은 기생하는 방식의 특징으로, 이 방식은 절대적 존재를 알 수 없음의 상태 그대로 둔다. 따라서 모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적 존재에 대한 개체 나름의 해석에 불과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2문단과 4문단에서 폴리스 형성 이후의 서양 철학에서는 절대적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밝혀 절대적 존

재와 개체의 수직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과 4문단에서 춘추시대 이후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학자들은 인, 예 등의 도덕적 가치를 마련함으로써 개체 간의 수평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31. [출제의도] 정보 간의 관계 파악하기

2문단에서 ‘쟁론’은 개체의 다름을 보편적 원리를 통해 하나의 모순 없는 체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함을 알 수 있다. 반면 3문단에서 ‘상보’는 개체의 다름을 도덕적 가치를 마련함으로써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것은 보편적 원리를 통해 하나의 모순 없는 체계로 설명하는 것과 다른 방식임을 알 수 있다.

① ‘쟁론’은 절대적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폴리스 형성 이후 서양 철학에서 중요해진 방식이다. ② ‘상보’는 개체의 다름을 아우르는 동일성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서 공유할 수 있는 도덕적 가치를 마련함으로써 개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식이다. 개체의 다름을 아우르는 동일성을 규명하는 것은 ‘쟁론’과 관련이 있다. ④ 4문단에서 ‘쟁론’과 ‘상보’ 모두 성곽 안의 공간에서 개체가 완벽한 지배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개체의 존재와 소멸을 주관하는 미지의 대상은 절대적 존재임을 알 수 있고, 5문단에서 절대적 존재를 알 수 없음의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은 ‘쟁론’과 ‘상보’가 아니라 기생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2.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A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 중 공통점에서 언급한 내용은 3문단을 참고할 때 중국에서 춘추시대 이후 공자의 사상을 계승한 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던 수평적 모순 해결의 방식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문단을 참고할 때 ‘도시의 논리’ 중 폴리스 형성 이후의 서양 철학과는 거리가 멀며, 5문단을 참고할 때 ‘야생의 논리’에도 해당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를 적절하다고 한 ㉠의 상호 평가는 옳바르지 않다.

한편 2, 3문단을 참고할 때 ‘도시의 논리’에서는 개체들 간의 수평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각각 ‘쟁론’과 ‘상보’의 방식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또 5문단을 참고할 때 ‘야생의 논리’에서는 수직적, 수평적 모순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으며 절대적 존재를 알 수 없음의 상태로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 학생이 작성한 활동지 중 차이점의 첫 번째 항목에서 언급한 내용을 적절하다고 한 ㉡의 상호 평가는 옳바르다. 또 차이점의 두 번째 항목에서 언급한 내용을 부적절하다고 한 ㉢의 상호 평가도 옳바르다. 따라서 상호 평가가 옳바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면 ㉡와 ㉢이다.

33.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에서 개체의 정체성을 임시적인 것으로 본다는 말은 카리스마를 부여받아 절대적 존재를 대리하는 대상에 임시적으로 기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그래서 언제든지 양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 말은 개체의 정체성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존재를 대리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① 다른 개체의 정체성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를 부여받아 절대적 존재를 대리하는 대상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개체의 정체성이 결정된다. ② 개체가 어떤 대상에 카리스마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카리스마를 부여하는 것은 절대적 존재이다.

34.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해소하다’는 ‘어려운 일이나 문제가 되는 상태를 해결하여 없애 버리다.’라는 의미이므로 ‘그릇

된 일을 바르게 만들거나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치다.’라는 뜻의 ‘바로잡다’와 바꾸어 쓸 수 없다.

① ‘소멸되다’는 ‘사라져 없어지게 되다.’라는 의미이므로 ‘사라지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계승하다’는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유산, 업적 따위를 물려받아 이어 나간다.’라는 의미이므로 ‘이어받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이동하다’는 ‘움직여 옮기다.’라는 의미이므로 ‘옮기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월등하다’는 ‘다른 것과 견주어서 수준이 정도 이상으로 뛰어나다.’라는 의미이므로 ‘뛰어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언어와 매체 정답

35	㉔	36	㉓	37	㉔	38	㉑	39	㉑
40	㉕	41	㉔	42	㉔	43	㉔	44	㉕
45	㉕								

언어와 매체 해설

35. [출제의도] 품사의 분류 이해하기

ㄱ의 ‘두’는 후행하는 명사 ‘사람’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36. [출제의도] 현대 국어와 중세 국어 품사 통용 탐구하기

현대 국어에서 ‘새’는 ‘새 학기가 되다.’의 ‘새’처럼 ‘학기’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로만 쓰이고 있다. 반면 중세 국어에서 ‘새’는 관형사, 명사, 부사로 두루 쓰였다. ‘새 구스리 나며’의 ‘새’는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로, ‘이 나래 새를 맛보고’의 ‘새’는 조사와 결합하여 ‘새로 나오거나 만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로, ‘새出家흔 사르미니’의 ‘새’는 후행하는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로 두루 쓰였다.

①, ② 현대 국어에서 ‘이’는 대명사로도 관형사로도 쓰이고 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의 ‘이’는 조사와 결합하여 ‘말하는 이에게 가까이 있거나 말하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이 사과는 맛있다.’의 ‘이’는 ‘사과’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로 쓰이고 있다. 중세 국어 ‘이’ 또한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대명사와 관형사로 쓰였다. ‘내 이를 爲호야’의 ‘이’는 조사와 결합한 대명사로, ‘내 이 도늘 가져가’의 ‘이’는 후행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로 쓰였다.

37. [출제의도] 음운 변동 이해하기

‘급행요금[그행노급]’에서는 ‘급’의 끝소리 ‘ㅂ’과 ‘ㅎ’이 축약되어 거센소리 [ㅍ]으로 발음되고 ‘급행’과 ‘요금’ 사이에서 ‘ㄴ’이 첨가된다. 탈락의 음운 변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① ‘물약’에서 ‘ㄴ’ 첨가가 일어나고 첨가된 ‘ㄴ’이 ‘물’의 끝소리 ‘ㄹ’의 영향을 받아 [ㄴ]로 바뀌어 발음된다. ② ‘옴는’에서 ‘옴’의 끝에 오는 두 자음 중 ‘ㄹ’이 탈락되고, 남은 ‘ㅍ’이 ‘ㅂ’으로 바뀌고 뒤에 오는 ‘ㄴ’의 영향을 받아 [ㄴ]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③ ‘값하다’에서 ‘값’의 끝에 오는 두 자음 중 ‘ㅅ’이 탈락되고, 남은 ‘ㅂ’이 뒤에 오는 ‘ㅎ’과 축약되어 거센소리 [ㅍ]으로 발음된다. ⑤ ‘넓죽하다’에서 ‘넓’의 끝에 오는 두 자음 중 ‘ㄹ’이 탈락되고, 남은 ‘ㅂ’의 영향을 받아 뒤의 자음 ‘ㅈ’이 된소리 [ㅉ]으로 발음이 바뀐다. ‘죽’의 끝소리 ‘ㄱ’과 뒤의 자음 ‘ㅎ’이 만나 거센소리 [ㅋ]으로 축약되어 발음된다.

38. [출제의도] 본말과 준말 활용형의 적절성 평가하기

‘내딘다’는 ‘내디디다’의 준말로 ‘내딘고, 내딘지, 내딘자’ 등과 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활용형에는 쓰이지만, ‘내딘어, 내딘으며, 내딘으니’ 등과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의 활용형에는 쓰지 않는다. ‘그녀는 새로운 삶에 첫발을 내딘었다.’에서 ‘내딘었다’는 ‘내디디었다(내디뎠다)’로 써야 한다.

② ‘서투르다’는 본말로 ‘서투르지, 서투르니, 서툴러’ 등과 같이 자음이나 모음으로 연결되는 어미의 활용형을 모두 쓸 수 있기에 ‘서투른’은 ‘서투르-’에 어미 ‘-ㄴ’이 결합된 단어로 그 활용형으로 적절한 예이다. ⑤ ‘건드리다’는 본말로 ‘건드리며, 건드리니, 건드리어’ 등과 같이 자음이나 모음으로 연결되는 어미의 활용형을 모두 쓸 수 있기에 ‘건드려도(건드리어도)’는 단어의 활용형으로 적절한 예이다.

39. [출제의도] 문장의 짜임 이해하기

‘아버지가 만든 책꽂이가 제일 멋지다.’는 ‘책꽂이가 제일 멋지다.’와 ‘아버지가 책꽂이를 만들었다.’라는 두 문장이 결합한 문장이다. ‘아버지가 책꽂이를 만들었다.’가 ‘책꽂이가 제일 멋지다.’에 안기면서 목적어 ‘책꽂이를’이 생략되었다. 따라서 ‘아버지가 만든 책꽂이가 제일 멋지다.’는 목적어가 생략된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이 된다.

② ‘어머니는 그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그 일이 끝나기’라는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이다. 이때 ‘그 일이 끝나기’라는 안긴문장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③ ‘그녀는 지난주에 고향 집으로 떠났다’는 ‘그녀’라는 주어와 ‘떠났다’라는 서술어의 관계가 한번만 나타나는 홀문장이다.

⑤ ‘형은 개를 좋아하지만 나는 싫어한다.’는 ‘형은 개를 좋아한다.’와 ‘나는 개를 싫어한다.’라는 두 문장이 동등한 자격으로 이어진문장이다.

40. [출제의도] 매체를 활용한 의사소통의 특성 파악하기

‘서영’은 소설 제목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소설의 비극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배경 음악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며 다들 한번 들어 보라고 해금 연주 음악 파일을 대화 참여자에게 전송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매체 자료 구성의 적절성 파악하기

(가)에서 ‘진희’는 ‘지호’가 전송해 준 줄거리 정리 파일을 확인하고 줄거리 소개에 쓸 장면을 자신이 고르겠다고 했다. 따라서 친구들의 의견에 따라 주요 장면을 선정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에서 ‘서영’은 소설 제목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소설의 비극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배경 음악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반영하여 (나)의 이야기판 1에 배경 음악으로 구슬픈 해금 연주가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가)에서 ‘진희’가 영상을 만든 자신들의 이름을 넣자고 제안했고 ‘민수’는 영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넣자고 언급했다. 이를 반영하여 (나)의 이야기판 1의 화면 오른쪽 하단에 만든 이름을 작게 넣어 소설 제목과 주인공들의 모습에 주목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에서 ‘민수’는 인물 소개 부분에 설명하는 자막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이를 반영하여 (나)의 이야기판 2에서 자막을 활용하여 등장 인물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에서 ‘민수’는 인물 소개 장면에서, ‘지호’는 줄거리 소개 부분에서 내레이션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나)의 이야기판 2와 3에 내레이션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수정 방안 추론하기

⑥를 보면 인물 등장 순서에 변화가 없으므로 인물의 역할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등장인물의 등장 순서를 바꾸자는 조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

① ㉔를 보면 (나)의 이야기판 1과는 달리 제목 아래에 부제가 나타나 있고, 부제의 내용이 운영과 김 진사가 처음 만날 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③ (나)의 이야기판 2에서는 자막이 인물 그림을 가리는데, ㉔에서는 자막이 화면 아래에 위치하여 인물 그림을 가리지 않고 있다. ④ (나)의 이야기판 3을 보면 배경 음악으로 노랫말이 있는 음악이 쓰였으나 ㉔에서는 내레이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가사 없는 음악을 쓰고 있다. ⑤ (나)의 이야기판 3에는 주요 장면이 3개 제시되어 있는데 ㉔를 보면 주요 장면이 6개로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출제의도] 매체의 유형과 특성 파악하기

(가)는 인터넷이라는 전달 매체 특성상 탑재 후에도 다시 수정할 수 있다. (가)의 표제 아래에 ‘입력’ 시간과 ‘최종 수정’ 시간이 나와 있는 것으로도 수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① 첫 번째 댓글을 쓴 매체 자료 수용자가 자신의 학생 동아리에서 동해 표기 관련된 자료를 게시하고 있다며 링크를 남긴 것을 보아 또 다른 매체 자료 생산자로서도 역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청취자가 누리집 게시판을 활용하여 올린 질문에 기자가 방송에서 답하는 것으로 보아 인터넷 매체를 추가하여 양방향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라디오는 매체 자료를 송출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 긴급 뉴스 속보 때문에 전달하지 못한 내용이 생겼으며 이를 다시 듣기 서비스로 보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4. [출제의도] 매체 언어의 특성 파악하기

(나)의 ‘진행자’는 ‘그런데’, ‘하지만’, ‘따라서’와 같은 접속 표현을 사용하거나 ‘그것’, ‘이런’과 같이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대신하는 표현을 써서 담화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다.

② “동해의~하는 것이다.”는 큰따옴표와 직접 인용 조사 ‘라고’를 사용하여 직접 인용된 것이다.

45. [출제의도] 매체 자료 수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㉔은 사실을 전달하는 부분이므로 주관적 의견을 표현한 내용이라는 설명과 그에 따른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① 도표가 제시되어 있으나 출처는 나와 있지 않으므로 매체 요소인 검색창을 활용하여 출처를 확인함으로써 자료의 신뢰성을 판단하겠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② 김△△(◇◇박물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이 기사에 담겨 있으므로 해당 전문가의 인터뷰 동영상의 내용을 분석하여 근거로서 타당한지 점검하겠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③ 다른 뉴스를 확인하고 비교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을 접하는 것은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수용자의 노력으로 적절하다. ④ 청각 매체의 특성상 안내된 정보의 세부 내용을 미리 알기 어려우므로 매체의 특성에 맞게 순차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적절하게 수용하겠다는 반응은 적절하다.